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22 신라 불교 전래

이차돈의 흰피, 신라에 불교를 적시다



이차돈 순교비.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2층 금석실에 전시돼 있다.

신라에 불교가 수용된 과정은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보다 더 극적이다. 모래, 순도, 아도, 목호자, 이차돈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신라불교의 수용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지금도 매우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경상도 지방에 위치했던 신라로서는 당시의 새로운 종교였던 불교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후의 세계, 윤회, 과보 등을 비롯해 공(空)이라는 개념은 구마라집이 중국에 정착한 이후에야 중국인들이 제대로 받아들였을 정도로, 동아시아 인물에게 있어 불교는 매우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인 종교였다.

〈삼국유사〉 ‘흥법편’에는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눌지왕(訥祗王: 417~456) 때에 사문 목호자가 일선군(一善郡: 지금의 경북 구미시 선산군)에 이르렀는데 그 지역 사람인 모래(毛禮)의 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21대인 비차왕(毘處王: 479~499)에는 아도(阿道) 역시 선산군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목호자와 아도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이든 아니든 간에 고구려를 통한 선산군 지역으로의 불교유입은 아마도 사실이었을 것이며, 5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라도 불교에 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라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불교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인정은 이차돈에 이르러서야 어느정도 안정됐다.

경주에는 금강산(金剛山)이 있다. 신라시대 오악(五嶽)의 하나로 북쪽에 있던 금강산을 대신하여 소금강산이라고 이름붙인 산이다. 이곳은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이차돈과 연관됐다. 이차돈의 본래 이름은 염축(厭醜, 삼국유사에는 성씨가 박 씨라고 돼있다)으로 법흥왕(法興王: 514~540)이 불교를 일으키려 할 때, 반대하는 중신들이 많았음에도 이를 본인의 순교로 신라 땅에 불교를 일으킨 인물이다.

순교의 순간 그의 목을 베자 흰 피가 한길이나 솟아올랐으며,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이 울리고 사방에서 꽃비가 흩날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흰 피가 솟는다는 표현은 불교경전에서 유래한 이야기다. 〈현우경(賢愚經)〉 〈부법장인연경(付法藏因緣經)〉에는 피가 젖으로 변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신라의 보수적인 성향을 건너기 위해 흘린 불교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차돈의 순교에 관한 유물은 백률사에 있었다. 이 유물은 원화12년(817년) 국통 혜룡(惠隆)과 범주 효원(孝園), 김상량(金相郞) 등이 이차돈의 제물을 기려 건립했다는 비석이다. 비면은 마모가 심해 알아보기 힘들지만 이차돈 순교당시의 모습은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다. 비는 지금 백률사를 떠나 국립경주 박물관 안에 소장되어 있다. 정확한 명칭은 ‘백률가옥면석당비’

로 신라불교 초기의 모습을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그 흔적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해동고승전〉은 이차돈의 순교 당시 범흥왕은 “이 이후로 부처님을 받들고 스님께 귀의하겠습니다[自今以後 奉佛奉僧]”라는 말을 남겼으며, 이후 불교국가로 모습을 바꾸게 됐다. 신라불교는 이후 무수한 불사를 일으키며 일취월장했다. 흥륜사를 지어 신라에 범불을 일으켰으며, 궁궐을 지으려던 자리가 황룡사로 바뀌고, 신라의 민간 신앙의 보고인 남산에도 불교로 채색되면서 무수한 불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기존의 전통을 넘어 불교는 신라 땅에 마침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7 구업(口業)



미다스왕의 귀가 당나귀귀인 것을 안 이발사는 구덩이를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고 속삭이고는 흙을 덮고 후련해 했다. 구덩이를 덮었던 흙에 갈대가 피어나고 어느 날 갈대가 바람에 나부끼면서 그 비밀을 말해버렸다. -오비디우스(Ovidius)의 ‘변신 이야기’ 중-

보은 범주사 가는 길에는 갈대숲이 있다. 차가운 땅을 덮고 선 갈대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갈대숲을 지나갈 때마다 갈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바람에 실어 보내고 있었다. 갈대숲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세상의 비밀들이었다.

이 곳 저 곳에서 내가 흘린 세상의 이야기들도 언젠가는 갈대가 모두 말할 것이다. 어찌해야 할까. 갈대숲에 서서야 알았으니, 갈대가 될 새 없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어느 해 겨울, 범주사 가는 길에.



사진부 차장

한국의 전시감상①

진각국사 혜심 선사의 ‘국사원적일(國師圓寂日)’

‘국사원적일(國師圓寂日)’
춘심원락정무애(春深院落淨無埃)
편편잔화점녹태(片片殘花點綠苔)
수도소림소식절(誰道少林消息絕)
만풍시송암향래(晚風時送暗香來)

깊은 봄 산사는 깨끗하여 티끌하나 없는데, 꽃잎이 가볍게 날아 푸르른 이끼 위에 떨어지누나. 그 누가 소림의 소식 끊겼대하리. 저녁 바람에 꽃향기 실려 오는데...

이 시는 고려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慧諷; 1178~1234)이 쓴 추도시이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슬픔은 묻어나지 않는다. 시제(詩題)를 통해서 우리는 보조 스님이 원적하신 날을 기려 유희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때는 봄이 깊어가는 3월 그믐께, 절은 티끌하나

없이 유난히 청정함을 보인다. 이 시의 배경을 ‘정(淨)’의 색깔로 입혔다. 이어 그 깨끗함 위에 가볍게 흩날리며 지는 꽃잎의 움직임을 포착하였다. 지는 꽃잎은 단순한 늦봄의 경치를 묘사한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떠나는 보조 스님을 형상화 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사용된 ‘잔(殘)’은 시의 분위기를 퇴색시키고 말 것 같다. 그러나 스님의 시선은 ‘푸르른 이끼’로 전이되어 주체를 바꾸어 버렸다. ‘잔(殘)’을 ‘연(緣)’으로 살려낸 것이다. 이는 아래 두 구의 복선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보조 스님이 원적에 든 날 스님은 보조 스님의 견처(見處)가 육신의 사멸로 인하여 끊어졌다고 여길 수도 있는 미혹한 중생심에 한 할(喝)을 하신다. ‘저녁바람이 꽃향기를 실어준다’는 것이 그것이다. 수선사(修禪社) 제2세인 스님의 할 치고는 너무 평범하고 자연스럽다. 불안(佛眼)이 갖추어지지 않은 육안으로도 말할 수 있는 꽃향기가 실

려 온단다. 그런데 꽃향기는 저절로 향내를 풍길 수 없다. 우선 꽃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주어야 하고 우리의 후각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근(根)과 경(境)과 식(識)이 화합하여 이루는 것이다. 화합하여 생긴 것이니만큼 흩어지면 모두 공(空)이다. 자연의 이치 하나로써 진여(眞如)자리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어 사별적일 수도, 관념화 될 수도 있는 공의 도리를 현실에서 볼 수 있게 한 보살심과 자비심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신은 갔으나 법신은 남아 우리를 범열의 세계에 뚜렷한 함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잔화(殘花)’로 비유되는 보조 스님의 원적과 ‘녹태(綠苔)’로 비유되는 후인들 위에 떨어지는[點] 본래의 의미이다. 선미(禪味)와 자연미를 잘 조화시켜 읊은 이 시를 선사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백초스님의 핵심래정택일지 辛卯年 신묘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훑어볼수있는 래정비법!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뵙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